

ARTIST

# Set to Default

현재 시청각랩(AVP lab)에서 열리는 작가 박미나의 개인전 제목은 이렇다. '왜 빗방울은 푸른 얼굴의 황금 곰과 서커스에서 곱혔을까?' 20여 년간 꾸준히 이어온 드로잉 작업에서, 색채를 수집하면서, 풍경을 통째로 치환하면서, 전시장의 관객이 되는 순간에도 박미나는 묻고 또 묻는다.

EDITOR : KIM MIN HYUNG  
PHOTOGRAPHER : LEE CHUNG HEK



**개인전 <왜 빗방울은 푸른 얼굴의 황금 곰과 서커스에서 곱혔을까?>의 제목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전시 제목은 여러 개의 과일명을 조합한 거예요. 이번 전시에 선보일 작품을 확인하려고 드림박스를 열었는데 파일이 작공명으로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나란히 병치된 파일명을 보니 잘 조합하면 재미있는 제목이 나오겠다 싶었어요. '서커스에서' 이 부분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 명사, 형용사 하나하나 조합했죠. '황금 곰?'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이 제목이 곧 전시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만들었어요.

**1998년부터 드로잉을 시작하셨는데, 오랜 시간 드로잉 작업을 지속해온 이유가 있나요?**  
그림을 그릴 때 계획 단계에서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어요. 보통 작업은 해코만 한 달, 길면 1년씩 걸려서 완성되는데, 어떤 지점에서든 계획이 즉각 발동되지 않는 순간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꾸준한 드로잉 작업은 생각을 신속하게 끌어내고, 이성의 지나친 개입을 막고, 남것의 무언가를 떠올려내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해요. 그중에 '여기서 조금만 더 무모익으면 작품이 될 수 있겠다' 싶은 드로잉이 새로운 방법의 모체와 발전적인 과정을 거치며 작품이 되어가요.

**색채 도안은 주로 어디서 구입하나요?**  
자주 방문하는 교토문고 맞트랙스에서 구입하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 공급하기도 해요. 수집이 취미인 친구가 1970-80년대의 색칠공부 도안을 모아서 줄 때도 있어요. 외국에서 구입한 것도 정말 많고요. 해외 한국에서 산 것 같은 푸베어는 데안에서 구한 거예요. 1990년대 미국 로드아일랜드에서 유행하던 시절 현지에서 구입한 도안도 많아요. 차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보스톤이 있어서 시내 서점들도 거의 다 가봤죠. 도안을 여기저기서 모으며 작업을 업데이트해요.

**이번 계기로 색채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작품 <Orange Painting>(2002-2003)을 작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색채 작업을 구제했었어요. 어느 날 그림판을 기획하던 큐레이터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시에서 어울릴 만한 오렌지색 페인팅이 있느냐고 물어서 '있긴

Set to Default



1973년 서울 출생. 미국 로드아일랜드 미술대학, 뉴욕 한터 대학교 대학원 졸업. 1996년 대학 이후 집(Home), 스코팅(Scoating), 색상 화환(Color Collecting) 연작 등을 선보이며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미술가로서의 인지를 공헌한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등에 소장됐다.

I Meets Park Rainbow Bus, 2020, colored pencil on coloring page, 39x54cm  
2020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박미나 1인방 전시에는 색칠공부 도안 시리즈 12점, 시리즈 18004 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30시간 정도 걸려 작업한 'I Meets Park Rainbow Bus'는 기존에 비해 더 오래 전시할 예정이다.  
\*가운뎃길 <왜 빗방울은 푸른 얼굴의 황금 곰과 서커스에서 곱혔을까?>는 5월 7일까지 열린다.

한데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이후 가리, 세로로 걸리라는 물 그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문득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오렌지색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지?' 이 질문이 작업의 출발점이 되었죠. 당시 작업을 위해 정밀한 오렌지색 텍스처를 보면 명명한 이름과 실제 눈에 보이는 색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색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지. 그 범위를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들을 한눈에 비교 분석이 되도록 펼쳐보고 싶었어요. 사회에서 통용되는 색의 범위를 살펴보면 색의 제조, 생산, 유통망의 등의 요소와 맞물려 사회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제프회사이드 색에 대해 생각해놓은 고우의 스탠더드는 어떻게 다를까? 그 스탠더드가 떨어져 우리가 선택을 하는 영역이 되고, 선택을 많이 하는 색은 점점 주류가 되는 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유학 시절 매일 동화책길에 마주한 고속도로의 풍경과 색채를 하나하나 수집해 작업한 <I>는 인상적이었나요?**  
제가 '빙글' 이런 게에 맞춰요. 무언가를 객관화하는 것, 그리고 경관이라는 단어가 가진 몰입감이 매력적이거든요. 당시 매일 차 타고 한 시간의 고속도로를 달려서 보는 풍경이 매일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호기심이 생겼죠. 내 머릿속에서 저장된 풍경을 그리므로, 통째로 만들어 수직화할지? 아니면 내 머릿속의 이미지와 같을까? 그래서 운전 중 컴퓨터

풍경을 촬영하고 그것에 차를 세우고 내 눈에 보이는 색을 유화해 기록했죠. 어떤 색의 윤곽을 선긋는 것도 표시해두고 작업할 때 돌아오면 촬영한 풍경 이미지를 모두 인쇄했어. 그리고 인쇄한 사진을 종이 위에 선포스터이 배제 그렸죠. 그리고 이 종이들을 다 펼쳐놓고 그날 촬영한 사진의 경우만큼 나누기를 하면 내가 보는 풍경 면적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 과정에는 등성등성 일정한 오차가 있겠지만 마이크로(우울) 아렌트 제가 보는 것들에 대한 통계로서의 풍경, 주관적 회화만 배제하고서 할 때 펼쳐지는 상황, 이 두 가지가 공존했어.

**작업에 수면적인 판단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상태를 지향하시잖아요. 사실 이런 것만은 관찰자의 눈에 닿는 순간 이미 주관이 개입될 것이고 객관화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저도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해요. 그래서 내가 현재 시 있는 위치, 방향,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지를 정확하게 좌표로 찍어요. 이므로 정확하게 <요와 <나> 합치면 <것>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지물 어떤 경우의 수 또는 좌표로 인식하게 되면 결국 사용 가능한 값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객관화한 자료(우울) 제 작업에 연도, 날짜, 및 시간 등 자세한 정보가 꽤 많이 등장하는 이유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충격을 숨김없이 알려주고 그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은 보는 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Copyright: Akao Visual, Pentone, @Avyuuuuu

Art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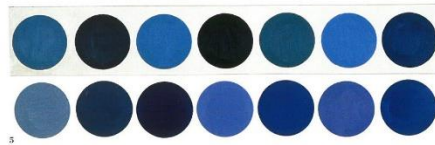


객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작품에 활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사라질지, 오류의 '쓰임'이 궁금해요. 과거 <Screen> 연작은 플간을 '거리적으로' 삼지 않고 이미 나와 있는 색을 그대로 사용해 완성한 시리즈예요. 색을 정강히 예민하고 까다롭게 선택해야 했죠. 아무런 제 주관을 최대한 거르고 길에서 최대한으로 객관화한다 한들 모든 것에는 오류가 있고 그래서 재미있어요. 저는 일부러 딱 하나의 오류를 만들어요. 어딘가엔 저와 비슷한 유형의 관객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아직 못 만나봤습'(웃음) 오류가 작동을 해야 재장비를 거치고 진화해 버리고 하잖아요. 재장비를 위해 오류를 하나씩 넣는 거죠. 지금 시정각별에 전시된 드로잉 작품 중에도 의도적으로 넣은 '열의' 작품이 있어요. 누구라도 "이 작품은 예외 아나가요?" 피드백을 주길 기다려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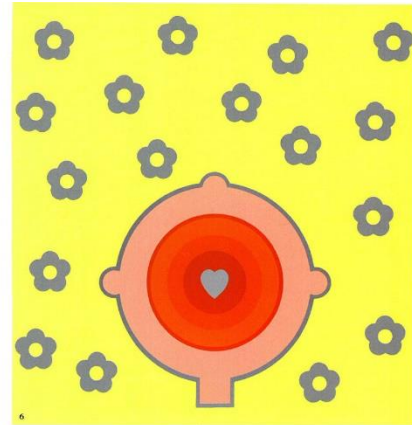
작가면서 동시에 오류를 발견하는 관객이 되는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미로 그림을 보면 저는 작품 감상과 미로가 미로를 직접 풀어보는 관객이예요. 예전에 어떤 전시에서 미로를 그린 작품을 본 적이 있어요. 순간 '정말 풀 수 있는 미로를 만든 건가?' 궁금해서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사진으로 찍고 A4 용지로 출력해 풀어봤어요.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이만큼 가다가 길이 두 갈래로 나오는 거예요. 작가님, 제대로 만들어야죠. 저 같은 관객이 또 있을 텐데(웃음)

주관적인 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성향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대한 시절 직면했던 콤플렉스예요. 내가 작품의 소재가 되지 않길 바라는 것에 대한 콤플렉스, 반대로 내가 관심 가지 않는 작가에 대한

4 Meeha Park, <February Sky>120 Days of Collecting the Sky! 1995-1996, c-print, 15x10cm each, 120 parts  
작가는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1995년 11월부터 1996년 2월까지 하늘을 촬영했다.  
5 Meeha Park, <February Sky> (Painting), 1996, oil on canvas and woodblocks, 61x213.4cm  
위에 칠영원 사진 중에서 2주차를 골라 하늘의 색을 연구하여 4월을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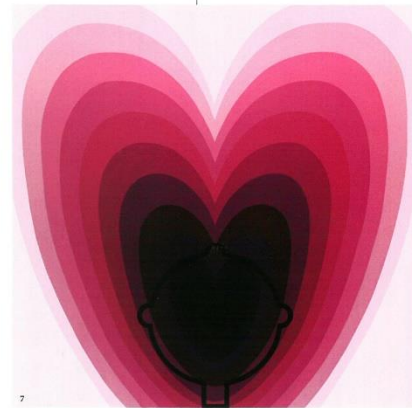


5



6 Meeha Park, <Flowers Screen>, 2005, acrylic on canvas, 200x200cm  
7 Meeha Park, <Radiant Hearts Screen>, 2005, acrylic on canvas, 180x180cm

4-7 Images Courtesy of Artist



고민에 대한 답은 어떻게 얻었나요? 사실 지금도 고민을 해요. "내가 아직 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건가?"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걸음을 하는 거죠.(웃음) '내가 시작 단계를 안 가고 멈춰 서 버리는 건가?' 연평균 내 스스로 주체가 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까? 지금은 제 자신에 대해 큰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제 상황이기도 해요. 주목하는 것보다 사라질 권리, 지워질 권리를 신중하게 사정인 거죠.

일상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엔 웹툰과 만화책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원래 즐기 보는 편은 아니네 다음 세대 작가들의 작품에서 종종 어법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어보았을 법한 것, 알만한 것들에 흥미를 느껴요. 가장 익숙한 것이 정작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릴 적에 누구나 한번쯤 씨름을 봤을 거예요. '지구화속의씨름'도 그런 예 중에 하나죠. 모두에게 익숙하거나 생활의 일부로 당연시했던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재미있어요. 잘 안다고 생각하나 곧이 시간을 들어서 그 범위의 역사를 알아보고 싶기까지는 않아요. 이 지점에서 호기심이 일어 연구와 기록을 하는 거죠.

콤플렉스이기도 하죠(웃음) 근데 왠 딜레마예요. "내 자신을 주목하는 게 편치 않은데 작가로서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저화성 정말 싫은데 나르시즘 재발...! 자기 연민...! 어휴, 어떻게 작업을 하지?" 이 물음이 대학교 2-3학년 때 직면한 최대 난제 중 하나였어요. "그러면 작업이 불가능한 걸까?" 숏고만 실은 사람은 작가가 될 수 있는 건가? 오랫동안 혼자 고민했죠. 주변을 봐도 이런 유형의 작가는 극소수예요.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오늘 착용하신 옷과 신발 모두 검은색인데요. 당신에게 검은색은 어떤 색인가요? 디폴트(default, 초기값)(웃음) 부언가가 없는 거죠. 제 옷장을 열면 새까맣다 실을 정도로 검은 옷들로 채워져 있어요. 매일 검은색 옷을 입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좋아해요. 하지만 마음 속에는 리본과 레이스도 있다고 생각해요.(웃음)